



## 운기론의 육기와 삼음삼양 연구: 오운육기와 기상학적 관점에서

최우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 A Study on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Six Qi: Based on the Theory of 'Yun Qi' and Meteorological Perspective

Woojin Choi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yin-yang properties of the six qi and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x qi and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Methods :** As the concept of six qi is the six climatic influences after all, I tried to grasp the yin and yang properties of the six qi on the basis of the meteorology and Yun Qi theory. Based on this I studied the concept and properties of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Results and Conclusions:** (1) Among the six qi, cold and heat refer to temperature, dryness and dampness to humidity, and wind and ministerial fire to atmospheric pressure. Wind is an ascending air current while ministerial fire is a descending air current. Therefore, wind, heat, and dampness are the yang, and ministerial fire, dryness, and cold are the yin. (2) Three yin and three yang represent changes of ying and yang of all things following six qi changes. Simple deviation of qi can be described by yin and yang, but consequent changes in form required further developed concepts of three yin and three yang. In other words, the changes of the form caused by wind, heat, and dampness are namely reverting yin, lesser yin, and greater yin respectively, while the changes of the form caused by ministerial fire, dryness, and cold are expressed as lesser yang, yang brightness, and greater yang respectively.

**Key words :** three yin and three yang, six qi, yun qi, meteorology

### 서론

자연은 주기성을 가지고 사계절을 만들고, 만물은 이 변화에 순응하고 있으며, 인간은 자연과 상호관계를 통해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환경은 사람의 생리기능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져 왔다<sup>1)</sup>.

이러한 과정에서 시공간의 유형·무형적인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육기(六氣), 삼음삼양(三陰三陽)이란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음양오행은 지구가 자전과 공전으로 태양의 영향을 다르게 받으면서 나타나는 낮과 밤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 만물의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sup>1)</sup>.

육기는 태양과 지구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여섯 가지 기후요

Received September 4, 2014, Revised September 17, 2014, Accepted September 17, 2014

Corresponding author: **Woojin Choi**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 220-702, Korea  
Tel: +82-33-741-9268, Fax: +82-33-732-2124, E-mail: jinny21c@hanmail.net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소인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를 의미한다<sup>2)</sup>. 외부육기는 대기에서 춥고 덥고, 건조하고 습하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서 온도와 습도, 풍도(기압)로 측정되고 인체의 내부 환경을 이루는 내부 육기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체온과 체액량, 혈압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sup>. 그리고 삼음삼양은 음양다소의 변화양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단순히 음양의 기를 세 개씩 나눈 것이 아니라 육기가 나타날 때 땅 위에서 나타나는 만물의 변화현상을 표현한 것이다<sup>3)</sup>.

한의학에서는 육기와 삼음삼양의 개념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경락론에서는 수태음폐경, 족양명위경 등 십이경맥의 명칭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상한론에서는 태양병, 소음병 등 병증의 분형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또한 오운육기에서 육기의 표(標), 내경에서 잡병의 분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등 삼음삼양은 생리와 병리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그동안 삼음삼양에 대하여 운기학과 주역의 육효를 통한 개념 연구<sup>5-7)</sup>, 내경과 의가의 학설 등을 통한 각각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설명한 연구<sup>8,9)</sup>가 있는데 기와 형의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육기에 대해서는 풍에 대한 연구<sup>10)</sup>와 삼음삼양과의 상응에 대한 연구<sup>11)</sup>가 있었고, 각 의가의 군화(君火)와 상화(相火)에 대한 연구<sup>12,13)</sup>와 삼음삼양 연구<sup>5)</sup>에서 풍과 상화, 조(燥)와 습(濕)의 음양속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육기는 기후의 개념이므로 그 성질에 대해 기상학적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하면 삼음삼양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장부와 경락 이론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에 저자는 오운육기에서 육기-특히 군화와 상화, 풍과 상화, 조와 습과 삼음삼양의 관계와 음양속성에 대해 현대 기상학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본 론

### 1. 육기

#### 1) 육기의 개념

우주의 모든 현상은 양면성을 가지고 대대작용이 일어나며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므로 태양의 뜨고 지며 밤낮이 발생하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변하는 태양의 입사각에 따른 복사의 강도와 기간의 차이로 계절이 발생한다<sup>1,14)</sup>.

태양과 지구의 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하루와 1년의 변화 양상을 표현한 것이 음양오행이라면,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기후요소를 나타내는 개념이 육기이다<sup>1)</sup>. 『소문·천원기대론』<sup>15)</sup>에서는 “풍한서습조화”는 하늘의 음양”이라 하였고, 『소문·지진요대론』<sup>15)</sup>에서는 “양이 동하면 따뜻해지기 시작하여 왕성하면 더워지고, 음이 동하면 서늘해지기 시작하여 왕성하면 추워지니 춘하추동이 각각 나뉜다”고 했으니 육기는 음양의 많고 적음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지칭한 것이다. 즉 봄과 여름의 특징적인 기후는 열이고, 가을과 겨울의 특징적인 기후는 한이다. 그리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 공기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풍과 상화이며, 습도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조와 습이다<sup>16)</sup>.

#### 2) 육기의 음양 속성과 작용

지구의 환경조건인 온도와 습도, 풍도(기압)는 기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후요소이다<sup>16,17)</sup>. 온도는 한과 열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고, 습도는 조와 습의 변화, 그리고 풍도는 풍과 상화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므로 현대 기상학적 이론을 통해 각각의 성질과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온도(한, 열): 온도는 물질이 갖고 있는 열 함유량의 척도로서 얼마나 차갑고 따뜻한지를 나타내는 양이다<sup>14)</sup>. 물질이 에너지를 얻게 되면 그 안의 분자운동은 빨라지고 온도는 상승하는데 열은 물체와 주위 사물과의 온도 차이로 인한 물체 안팎으로의 에너지 이동이다<sup>17)</sup>.

열은 더운 성질을 의미하고, 서는 여름의 주된 기후인 더위를 나타내는데, 이는 덥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에 열이 나게 한다<sup>15)</sup>. 반면에 한은 겨울의 주된 기후인 추위로서 사기로 작용하면 양기를 쉽게 손상한다<sup>18)</sup>. 이는 딱딱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한이 많으면 땅이 갈라지는데<sup>15)</sup> 한기와 열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나타난다. 따라서 한은 기운을 안으로 잡아 가두어 움직임이 저하되게 하므로 음적이고, 열은 밖으로 나가게 하여 움직임이 증가하게 되므로 양적이라 할 수 있다<sup>8)</sup>.

(2) 습도(조, 습): 습도는 공기 중의 수증기량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를 습이라 하고 마른 상태를 조라고 한다<sup>14)</sup>. 조는 가을의 주된 건조한 기후로서<sup>18)</sup>, 마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이 건조해진다<sup>15)</sup>. 반면에 습은 장마철의 습한 기후로서<sup>18)</sup>, 윤택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이 질퍽해 진다<sup>15)</sup>.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주로 상대습도로 측정되며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많아진다. 상대습도는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포화되기 위해 필요한 수증기의 양에 대한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의 비율로서,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내기보다는 공기의 포화에 얼마나 근접한가를 나타낸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포화상태의 습기량은 많아진다<sup>17)</sup>.

조와 습에 대해 송<sup>5)</sup>은 건조한 것은 양적이며 습한 것은 음적이라

고 하였고, 반면 이<sup>8)</sup>는 습이 변화를 일으키므로 양적이라고 했고, 조는 만물을 말리고 수렴시키는 기운이므로 음적이라고 했다. 기상학<sup>14,17)</sup>적으로는 더욱수록 더 많은 습기를 포함할뿐만 아니라 습한 기후는 따뜻한 공기로 인한 저기압 상태에서 나타나 일년 중 한여름에 가장 습하므로 양적이고, 추울수록 상대적으로 건조해질뿐만 아니라 건조한 기후는 고기압이거나 한류와 근접한 곳에서 찬 공기의 결과로 나타나 일년 중에서는 겨울에 가장 건조하므로 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습윤한 공기의 수증기는 증발을 느리게 하고 열을 가두어서 냉각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양적이고, 건조한 공기는 인체의 땀을 쉽게 증발하게 하며 지면의 열을 발산시켜 서늘하게 만든다<sup>14)</sup>는 점에서 음적이라 할 수 있다.

**(3) 풍도(풍, 상화):** 기압은 표면 위에 놓인 공기의 무게로서 공기는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는 팽창하고 기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압축된다. 대기 중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밀도가 낮아 상승하고 지면에서 공기 분자의 수와 질량을 감소시켜 저기압을 형성한다. 그리고 저기압 중심으로 수렴된 공기는 상승기류를 만들고 상승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며, 수증기는 냉각되고 응결하여 구름과 강수를 형성한다. 반면 상부에서 냉각된 차고 건조한 공기는 밀도가 높아 고기압을 형성하며, 상승은 수렴현상이 있어서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하층에서는 발산이 일어나며 날씨가 맑다<sup>14)</sup>.

이처럼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차고 건조한 공기에 비해 밀도가 낮아 상승기류를 형성하고, 차고 건조한 공기는 밀도가 높아 하강기류를 형성한다. 즉 공기의 흐름은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저기압으로 불어드는 기류는 기압경도력에 의해 고기압에서 발산되는 기류보다 바람의 속도가 빠르다<sup>17)</sup>.

한의학에서 풍은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며<sup>10)</sup>, 움직이게 하는 성질이 있어 풍이 많으면 땅이 움직인다<sup>15)</sup>. 반면에 상화는 군화의 명을 실행하는 재상에 해당하는 화로서 상하를 운행하여 소통하는 기운이고<sup>18)</sup>, 열을 전달함으로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 땅을 견고하게 다진다<sup>15)</sup>. 풍과 상화의 속성에 대해 송<sup>5)</sup>은 풍은 양적이고 상화는 음적이라고 했고, 반면 이<sup>8)</sup>는 풍은 언 땅에 봄바람을 일으켜 음에서 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주도하는 양의 기운이고, 상화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를 조절하여 그 활동의 결과는 양의 기운이 적어지는 음의 기운이라고 했다.

그런데 육기를 구성하는 온도의 한과 열, 습도의 조와 습이 반대의 개념이므로 기류의 세기인 풍도(기압)를 나타내는 풍과 상화도 반대의 개념이라 추론할 수 있다. 기류의 흐름은 저기압으로 인한 상승기류와 고기압으로 인한 하강기류로 구분되고, 풍도는 풍과 상화로 구분되니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는 풍과 상화에 대응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따뜻한 공기로 인한 상승기류로 불어 들어오는 강한 바람은 쉽게 느낄 수 있으니 봄에 특징적인 풍이고, 서늘한 공기로 인한 하강기류에서 발산되는 완만한 흐름은 초가을에 특징적인 상화라고 사료된다. 기류의 흐름은 큰 범주로 모두 풍<sup>10)</sup>이라 하기도 하고 상화<sup>18)</sup>라 하기도 하는데,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로 구분하면 다시 풍과 상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풍은 봄의 특징적인 따뜻한 공기에 의해 유발된 상승기류이므로 양적이고, 상화는 가을이 시작되면서 서늘한 공기에 의해 하강하는 기운이므로 음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기의 성질을 기의 방향과 작용에 따라 음과 양으로 구분하면 한은 음이고 열은 양이며, 조는 음이고 습은 양이며, 상화는 음이고 풍은 양이다. 즉 풍, 열, 습은 따뜻하거나 더운 시기에 나타나므로 그 속성이 양적이고 상화, 조, 한은 서늘하거나 추운 시기에 나타나므로 음적이다.

### 3) 군화와 상화

한의학에서는 자연과 체내에서 작용하는 화를 군화와 상화라는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자연에서 나타나는 상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열의 이동과 순환을 이루는 공기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고<sup>15)</sup>, 둘째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sup>19)</sup>. 그리고 인체에서 나타나는 상화는 명문상화, 간담상화, 삼초상화, 심포상화, 오지(五志)의 화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sup>20,21)</sup>. 이처럼 상화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문맥에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군화와 상화에 대해 『소문·천원기대론』<sup>15)</sup>에서 “君火以明 相火以位”라고 그 역할을 설명한 이후 왕병<sup>22)</sup>은 “군화는 이름뿐이고 상화가 대행한다”고 했고, 주진형<sup>23)</sup>은 “군화는 인화(人火), 상화는 천화(天火)인데 명(命)으로 말하면 군화라 하고 지위로서 말하면 명을 맡아 행하므로 상화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장남(章楠)<sup>24)</sup>은 “군화는 체(體)이고, 상화는 군화를 좇아 활동한다”고 하였으니 상화는 왕명을 행하는 재상으로 비유되어 군화(열)가 사방으로 전달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소문·오운행대론』<sup>15)</sup>에서는 “화기가 상하 사이를 운행한다”고 하였으니 화기로 표현된 상화는 소통하는 기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체 내에서는 군화(심장)의 명을 받은 상화가 전신을 두루 유행하면 모든 조직이 화를 받아 음양이 화평을 이루지만 사기(邪氣)에 의해 조직이 막혀 울체가 심해지면 화가 순행하지 못하니 상실하(上實下虛)가 된다<sup>21)</sup>. 따라서 군화(열)는 더운 기운으로서 온도를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상화는 공기의 흐름으로서 풍과 함께 풍도(기압)를 나타내는 개념이

며 체내에서는 열의 이동과 순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는 그 축이 23.5도 경사져 있으므로 오운에서 새로운 불이 하나 더 불어나 六氣로 나타나므로 상화는 복사열을 의미한다<sup>19)</sup>.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 복사에너지로 인해 지구는 가열되고, 반사 및 재분배에 의한 과정으로 복사의 평형이 이루어진다<sup>14)</sup>. 한편 달에는 대기가 없고 표면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람이나 기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지구처럼 열을 잡아두는 온실효과도 일어나지 않는다<sup>25)</sup>. 대기의 움직임은 온도차에 의한 기압차에 의해 생기는데 달에는 이러한 변화가 없고 오직 지구에만 있으므로 복사열과 같은 상화도 지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체내에서 나타나는 상화는 군주로 비유되는 심장의 열과 함께 명문상화, 간담상화, 삼초상화, 심포상화로 구분된다. 사람은 타고난 기운인 원기(原氣), 호흡과 심장의 박동으로 나타나는 기운인 종기(宗氣)가 있는데 모두 추동하는 힘이 있으므로 오행 중 화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심장은 끊임없이 박동하며 전신에 따뜻한 혈액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임금으로 비유하여 군화라고 한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몸의 기운은 원기로서 명문(命門)이란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심장을 보필하는 심포와 심화를 받는 간신(肝腎), 심화(心火)를 전신에 순환시키는 삼초를 상화라고 하였다<sup>20,21)</sup>. 이와 같이 체내에서의 순환은 움직임이므로 오행 중 '화'로 지칭해야 하는데 심장의 화와 구별하기 위하여 심화를 군화라고 하였고, 명문의 원기와 삼초 등은 상대적인 화라는 의미로 '상'을 붙여 '상화'라고 표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칠정이 울결되어 나타나는 화로서 이는 병리적인 화이므로 인체의 정상적인 화와 구분하여 상화라고 한다. 주진형<sup>23)</sup>은 "사람이 욕심으로 인한 칠정(人欲)으로 의해 몸에서는 화가 망동하여 원기를 손상시키는데 내경에서 五火라고 한 이것을 상화라고 한다"고 했다<sup>21)</sup>. 그리고 이동원은 "상화는 원기의 적이므로 상화와 원기는 함께 있지 못하다"고 했고, 장경약은 상화는 원기의 근본이라고 하여 서로 상반된 학설을 제시했으나 장남(章楠)은 둘 다 맞다고 하였다<sup>24)</sup>. 왜냐하면 원기의 적이 되는 상화는 칠정울결로 인한 병리적인 화이며, 원기의 근본이 되는 상화는 선천적으로 타고 난 생리적인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화는 열이 사방으로 전달되는 흐름의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인체에서는 원기와 순환을 의미하는 생리적인 화와 칠정울결로 인한 병리적인 화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오운육기의 상화는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연에서는 태양으로 인한 열(군화)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인체에서는 심화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운육기의 범위에서 다

루고 있으므로 상화는 풍과 함께 기류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삼음삼양

### 1) 삼음삼양의 개념과 필요성

삼음삼양은 음양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진 것으로서 『소문·천원기대론』<sup>15)</sup>에서는 음양의 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삼음삼양으로 나뉜다고 하였고, 『소문·음양류론』<sup>15)</sup>에서는 일양을 소양, 이양을 양명, 삼양을 태양이라 하고 일음을 꺾음, 이음을 소음, 삼음을 태음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음양은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사물의 속성을 판단하는 수단이 되지만 실제 현상과 사물의 시간적·공간적 측면을 함께 표현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육기에 의한 자연의 계절 변화는 형체가 없어서 음양의 편차만 보면 되지만 유기적 생명체가 나타내는 정체성은 편차만이 아니라 형과 기의 동시적 변화를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무형의 기와 형질의 변화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삼음삼양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sup>6,9)</sup>.

이에 대해 『소문·천원기대론』<sup>15)</sup>에서는 "풍한서습조화는 천기의 음양이니 삼음삼양이 육기의 명을 받들어 만물의 변화를 드러내고, 그 영향을 받은 땅의 오행은 땅의 음양이니 태과와 불급이 생겨 만물의 생장화수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즉, 하늘에서 육기 각각의 기상현상이 생겨날 때 땅위의 만물에서 나타나는 변화현상을 형의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 삼음삼양이라고 말하고 있다<sup>9)</sup>.

이를 통해 볼 때 삼음삼양은 음양의 기, 즉 음기와 양기를 각각 셋으로 구분하여 만물의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생겨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만물의 현상은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의 작용과 땅에서 나타나는 형의 작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를 삼음삼양으로 표현할 때도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삼음삼양의 명칭은 같더라도 의미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것이 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지 형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즉, 사물은 형체(體)를 이루는 물질과 쓰임(用)이 되는 기능이 있어 『소문·음양상대론』<sup>15)</sup>에서는 "양화기 음성형"이라 하여 양은 기가 되고, 음은 형을 이룬다고 했다. 기는 본체의 기능을 의미하고 형은 구조를 의미하므로 기(用)는 양이라 하고, 형(체)는 음이라 한다<sup>1)</sup>. 따라서 기를 나타낼 때는 양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형을 나타낼 때에는 음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기의 관점에서 보면 봄과 여름의 기운은 활발해지며 점점 더워지니 양기가 커진다고 표현하고, 가을과 겨울의 기운은 약해지며 점점 추워지니 양이 작아지고 음기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삼

음삼양의 기의 다소는 양기가 가장 많은 것이 태양이고, 다음은 양명이며 가장 작은 것은 소양이다. 그리고 음기가 가장 많은 것이 태음이고, 다음은 소음이며 가장 작은 것은 궐음<sup>14)</sup>이므로 일년 중 상반기는 삼양에 속하고, 하반기는 삼음에 속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 보면 봄과 여름에는 만물의 형체가 점점 커지므로 음이 커진다고 표현하고, 가을과 겨울의 형체는 점점 작아지니 양이 커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형의 음양으로 삼음삼양을 배속시키면 일년 중 상반기는 삼음에 속하고, 하반기는 삼양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의 관점에서는 태양은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태음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형의 관점에서는 태음이 형체가 가장 크고 태양은 형체가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2) 삼음삼양 각각의 의미

삼음삼양은 기운과 형질을 모두 나타내기 위한 개념이므로 기(양)의 관점과 형(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의 관점에서 보면 양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음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다. 형의 관점에서 보면 음은 형체가 커지는 것이고, 양은 형체가 작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봄과 여름에는 양기가 증가하고 음형이 커지며, 가을과 겨울에는 음기가 증가하고 음형이 작아진다. 삼음삼양 각각의 의미를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궐음:** 궐음은 음이 생기려고 하지만 힘이 미약하여 아직 생하지 못하는 약한 음을 말하는 것이다<sup>19)</sup>. 기의 관점에서는 음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초가을에 조금 서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조금 생겨난 것으로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작은 형을 나타낸다.

『소문·지진요대론』<sup>15)</sup>에서는 궐음이 음이 소진되어 장차 회복하려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했고, 『소문·맥해』<sup>15,26)</sup>에서는 양중의 음인 진월(3월)이라 하였으니 이는 형의 관점에서 궐음을 나타낸 것이다.

**(2) 소음:** 소음은 음기에 의해 만물의 양기가 모두 억제되어 드날리지 못하는 것이다<sup>15)</sup>. 기의 관점에서는 음기가 중간 정도로 있는 것으로서 가을에 서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중간 정도로 생겨난 것으로서 늦봄이나 초여름의 잎과 같이 중간의 형을 나타낸다.

『소문·맥해』<sup>15,26)</sup>에서는 신월(7월)은 가을의 기운이 이르므로 소음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기의 관점에서 소음을 나타낸 것이다.

**(3) 태음:** 태음은 궐음이나 소음에 비하여 더 커진 음이면서 형이 시작되는 인묘진의 기본이다<sup>19)</sup>. 기의 관점에서는 음기가 가장 커진 것으로서 기후적으로는 겨울에 추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아주 커진 것으로 늦여름의 잎과 같이 가장 큰 형을 나타낸다.

『소문·맥해』<sup>15,26)</sup>에서는 “태음은 음기가 가장 왕성한 자월(11월)에 해당하는데 이때에는 만물의 기가 모두 가운데에 저장된다.”고 하였으니, 이는 기의 관점에서 태음을 나타낸 것이다.

**(4) 소양:** 소양은 양의 창조과정의 첫 단계이다<sup>19)</sup>. 기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봄에 조금 따뜻해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조금 작아진 것으로서 초가을의 잎과 같이 성장을 멈추고 줄어드는 형을 나타낸다.

『소문·맥해』<sup>15)</sup>에서는 소양은 양기가 적고 음기가 성한 술월(9월)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형의 관점에서 소양을 나타낸 것이다.

**(5) 양명:** 양명은 소양과 태양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의 작용이 소양처럼 불급하지도 않고 태양처럼 태과하지도 않은 것이다<sup>15)</sup>. 기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중간 정도로 커진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늦봄과 초여름에 조금 더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중간 정도로 작아진 것으로서 가을의 잎이 시드는 것과 같이 조금 줄어든 형을 나타낸다.

『소문·맥해』<sup>15,26)</sup>에서는 양명은 오월(5월)에 해당하여 양이 극도로 왕성해진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기의 관점에서 양명을 나타낸 것이다.

**(6) 태양:** 태양은 본체로 보면 가장 작은 양이지만 현상으로 보면 가장 큰 양이다<sup>19)</sup>. 기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가장 커진 것으로서 기후적으로 한여름에 매우 더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사물의 형체가 가장 작은 것으로서 겨울에 잎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줄어든 것을 나타낸다.

『소문·맥해』<sup>15)</sup>에서는 “인월(1월)은 왕성한 음기를 뚫고 양기가 위로 나오는 때라고 하였으니, 이는 형의 관점에서 태양을 나타낸 것이다.

삼음삼양의 월별배속을 정리하면 『소문·맥해』<sup>15)</sup>에서는 태양은 1월, 궐음은 3월, 양명은 5월, 소음은 7월, 소양은 9월, 태음은 11월로 삼음삼양과 월을 배속하여, 음양이 순서대로 배속되지 않고 교차하고 있어 운기편의 배속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sup>27)</sup>는 삼음삼양 힘의 크기 순서가 아닌 삼음삼양의 표리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표리의 육기가 태양-소음, 궐음-소양, 양명-태음으로 배합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고 하였다. 앞서 삼음삼양을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으로 본 내용에 비추어보면 『소문·맥해』에 나타난 월별배속은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기의 관점에서는 양기가 가장 작은 것을 소양, 중간을 양명, 가장 많은 것을 태양이라 하고 음기가 가장 작은 것을 궐음, 중간을 소음, 가장 많은 것을 태음이라고 한다. 반면 형의 관점에서는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형이 시작되는 것을 궐음, 잎이

점점 커가듯 형이 커지는 것을 소음, 가장 크게 자란 형을 태음이라 한다. 그리고 형의 팽창을 멈추고 수렴을 시작하는 모습을 소양, 잎의 색이 변하고 시들기 시작하여 형이 작아지는 것을 양명, 잎이 떨어져 형이 아주 작아지고 양이 응축되는 현상을 태양이라 한다<sup>11)</sup>.

### 3. 육기와 삼음삼양

#### 1) 육기와 삼음삼양의 관계

삼음삼양과 육기의 관계에 대하여 『소문·천원기대론』<sup>15)</sup>에서는 “결음은 풍기와 상응하고, 소음은 열기, 태음은 습기, 소양은 화기, 양명은 조기, 태양은 한기와 상응한다”고 하였다. 육기는 외부의 현상을 유발하는 본질적 기운이고, 삼음삼양은 육기의 작용에 의해 외부에 발현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11)</sup>. 즉 풍기에 의해 형체에 나타나는 특징을 결음이라 하고, 열기에 의해 소음, 습기에 의해 태음이 발현된다. 그리고 상화에 의해 소양, 조기에 의해 양명, 한기에 의해 태양이란 형의 특징이 나타난다.

자연의 계절변화는 형체가 없어서 표·본·중을 살필 필요 없이 음양의 편차만 보면 된다. 그러나 유기적 생명체가 나타내는 정체성은 편차만이 아니라 형과 기의 동시적 변화를 수반한다<sup>6)</sup>. 그러므로 육기가 내적 운동인 기를 표현한 것이라면 삼음삼양은 육기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물 변화의 형상(표식)을 표현한 것이므로 육기는 ‘본(本)’이 되고 삼음삼양은 ‘표(標)’가 된다<sup>9)</sup>.

한편 황제내경 소문<sup>15)</sup>에서는 삼음삼양이 기의 관점과 형의 관점이 혼용되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표’인 형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의 관점에서 기의 음양을 나타낼 때는 삼음삼양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음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기가 주관하는 봄과 여름에 드러나는 표식은 삼음으로 표현했고, 음기가 주관하는 가을과 겨울에 드러나는 표식은 삼양으로 표현했다. 즉, 풍과 열, 습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물의 변화현상은 각각 결음, 소음, 태음으로 나타났고 상화, 조, 한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만물의 변화현상은 각각 소양, 양명, 태양으로 나타냈다.

#### 2)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한 명칭의 의미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된 명칭인 결음풍목, 소음군화, 태음습토,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한수에는 결음과 풍, 소음과 열, 태음과 습, 소양과 상화, 양명과 조, 태양과 한이 조합되어 있다. 이 명칭은 각각 음과 양, 양과 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음과 풍목은 동격이 아니라 풍이 본이고 결음이 표이므로 봄철에 풍이 나타날 때의 외적 변화양상이 결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태음과 습이 동격이 아니고 소양과 상화가 동격이 아니다. 만약 삼음삼양이 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 것

이라면 삼음삼양과 육기를 같은 속성으로 연결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양이 시생하는 기운인 소양과 봄의 기운인 풍목을 합하여 소양풍목이라 명명하고, 순서대로 양명군화, 태음습토, 결음상화, 소음조금, 태양한수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된 명칭은 특정 시기의 기운과 그에 따라 나타난 형상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이므로 음(결음, 소음, 태음)+양(풍목, 군화, 습토), 양(소양, 양명, 태양)+음(상화, 조금, 한수)으로 결합된 것이다.

(1) **결음풍목**: 풍은 봄(목)에 주로 나타나는 따스하고 상승하는 기운이므로 풍목이라 하고, 결음은 풍기의 영향을 받아 새싹이 돋고 만물의 형이 생겨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육기 중 따스한 풍목의 영향을 받아 만물에 나타나는 형의 변화를 결음이라 하였다. 즉, 결음과 풍목을 결합한 단어인 ‘결음풍목’이란 만물의 형을 생겨나게 하는(결음을 있게 만드는) 봄철과 같은 운기(목기)를 나타낸다.

(2) **소음군화**: 열은 여름(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더운 기운이므로 군화라 하고, 소음은 열기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형이 조금 커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음과 군화를 결합한 단어인 ‘소음군화’는 만물의 형을 성장하게 하는 여름철과 같은 열기(군화)를 의미한다.

(3) **태음습토**: 습은 환절기(토)를 주관하는 습한 기운이므로 습토라 하고, 태음은 열기에 이어 습기의 영향을 받아 만물의 형이 가장 커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음과 습토를 결합한 단어인 ‘태음습토’는 만물의 형을 가장 크게 만드는 장하의 습기(토기)를 의미한다.

(4) **소양상화**: 상화는 초가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늘한 하강 기운을 의미하고, 이 때가 되면 만물이 형의 성장을 멈추고 작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소양이라 한다. 따라서 소양과 상화를 결합한 단어인 ‘소양상화’는 형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초가을과 같은 서늘한 기운인 상화를 의미한다.

(5) **양명조금**: 조는 가을(금)을 주관하는 건조한 기운이므로 조금이라 하고, 양명은 조기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 마르고 줄어드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명과 조금을 결합한 단어인 ‘양명조금’은 만물의 형을 시들고 작아지게 만드는 가을철과 같은 조기(금기)라는 의미이다.

(6) **태양한수**: 한은 겨울(수)을 주관하는 차가운 기운이므로 한수라 하고, 태양은 한기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 아주 작아지고 잎이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태양과 한수를 결합한 단어인 ‘태양한수’는 만물의 형을 소멸시키는 겨울철과 같은 한기(수기)라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운기론의 육기와 삼음삼양의 속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육기는 자연의 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온도의 한열, 습도의 조습, 그리고 풍도(기압)의 풍과 상화이며 그 속성은 풍과 열과 습은 양의 기운이고 상화와 조와 한은 음의 기운이다. 그리고 삼음삼양은 초기에는 음양의 기를 세분화하여 표현하는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육기의 영향을 받아 만물이 변화하는 형의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삼음삼양과 육기를 결합한 명칭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만물의 특성과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와 형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고자 만든 것이다.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육기와 삼음삼양이 대표적으로 경락의 명칭과 육경변증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십이경락의 명칭은 음양을 기본으로 하여 삼음삼양의 표리상합관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서 명칭과 관련한 육기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락의 유주는 음경인 췌음경, 소음경, 태음경은 아래에서 위로 주행하고 양경인 소양경, 양명경, 태양경은 위에서 아래로 주행한다<sup>28)</sup>. 본 연구에서 췌음풍목과 소음근화, 태음습토의 속성은 양적이므로 기가 상승하고, 소양상화와 양명조금, 태양한수의 속성은 음적이므로 기가 하강한다고 한 결과는 췌음경, 소음경, 태음경의 경기(經氣)는 상승하고, 소양경, 양명경, 태양경의 경기는 하강하는 것과 흐름이 일치하므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경락명칭에 나타난 삼음삼양의 속성과 유주방향에 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경락 속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결론

기상학적 관점에서 운기론의 육기와 삼음삼양의 관계와 음양속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육기는 풍·한·서·습·조·화의 여섯 가지 기후로서 체외와 체내환경에서 한열은 온도, 조습은 습도, 풍과 상화는 풍도(기압)를 나타낸다. 이 중 풍과 상화는 기류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상승기류는 풍에 해당하고, 하강기류는 상화에 해당한다. 그리고 습은 따뜻한 공기로 인해 나타나며 일년 중 한여름에 가장 높으므로 양적이고, 조는 추울수록 상대적으로 건조해질뿐만 아니라 일년 중 겨울에 가장 건조하므로 음적이다. 따라서 육기를 음양으로 구분하면 봄과 여름의 특징적 기후인 풍, 열, 습은 양의 기운이고, 가을과 겨울의 특징적 기후인 상화, 조, 한은 음의 기운이다.

2. 삼음삼양은 육기의 변화에 따라 만물에 드러나는 음양의 변화 현상을 삼음과 삼양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처음에는 음양의 크기를 세분화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다. 하지만 현재는 육기가 기를 나타

내고, 삼음삼양은 외부로 드러난 형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삼음삼양과 육기가 결합된 명칭은 자연과 사람에서 일어나는 기의 특성과 형의 상태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명명되었다. 즉, 풍, 열, 습으로 인해 나타난 형의 변화를 각각 췌음, 소음, 태음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합하여 췌음풍목, 소음근화, 태음습토로 나타냈다. 그리고 상화, 조, 한으로 인해 나타난 형의 변화를 각각 소양, 양명, 태양으로 표현하였고, 이를 합하여 소양상화, 양명조금, 태양한수라고 명명하였다.

## References

1. Physiology Professors of the Colleges of Korean Medicine in Korea. Traditional Korean physiology. Seoul : Jipmoondang. 2008 : 16, 26-7, 38, 42-4, 71-2, 75, 81, 96-7.
2. Kim WH. Views and significance of life in Korean medicine.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1997 ; 12(2) : 17.
3. Jeong HS, Hong WS. A Study on the forms of human hands by Sam-Eum-Sam-Ya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3 ; 16(1) : 243-76.
4. Yoon CY. A Study on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Oriental Medical Institution, Daejeon University. 1996 ; 4(2) : 337-53.
5. Song BC. Understanding about the Three Eum and Three Yang in the Theory of Motion and Vigor.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93.
6. Kim DH.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based on the yun-qi theor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 22(4) : 145-51.
7. Park CK.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three Um and three Yang of Unki theory and the Geon divination sign of Ichi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0 ; 13(2) : 14-20.
8. Lee YB. A Study of Yangshangsun's theory of three-yum and three-yang - focus on attribute of three-yum and three-yang, the bolt-leaf-hanges theory, large of small of gi-blood.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6 ; 10 : 450-93.
9. Baik YS, Park CK. A study of conception of pyo · bon · joong in the part of woongihak in negeo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8 ; 11(2) : 114-31.
10. Back SR, Park CK. Study on true nature of the Fung and that of

- application to the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3 ; 7 : 207.
11. Chin JH. The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Sameum-Samyang and Yookgi. 2009 : Se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12. Baik YS. A Study on Comparison Gunhwa-ron by Jinmutaek and Sanghwa-ron by Judangy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 19(3) : 381-8.
  13. Kim KW, Park HK. A Comparative Study on Sanghwa-ron by Ju-dangye and Chang-gyungak.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 19(4) : 12-26.
  14. Fry, Graf, Grotjahn, Raphael, Saunders, Whitaker. Kwon HJ. The encyclopedia of weather and climate change. Seoul : Sigma Press. 2011 : 16, 26, 30, 32, 34, 76-7, 200.
  15. Hong WS. Huangjenaegyeong-somun (translation). Seoul : 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1992 : 292-297, 376, 378, 384, 495, 493.
  16. Yoon GY. Study on a Methodology for Korean Medicine. Seoul : Seongbosa. 1983 : 34-6.
  17. Frederick K, Lutgens, Edward J, Tarbuck. Ahn JB. Atmospheric science 10th ed. Seoul : Sigma Press. 2009 ; 7, 52, 124-5.
  18. Korean Medical Dictionary Compilation Committee. New Korean Medical Dictionary. Seoul : Jeongdam publishing company. 2010 : 785, 918, 1096, 1455, 1789, 1880.
  19. Han DS. The principle of the universe changes. Daejeon : Daewonbooks. 2001 : 96, 153-7.
  20. Kim WH, Kim KJ. Theory and Clinic of Internal Medicine. Seoul. Iljungsang. 1996 : 289-95, 301.
  21. Hwang WD, Kim JH. A study on the correlations among the intestinal fire, the sovereign fire, and the life gat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994 ; 8: 161-95.
  22. Wang B. New Huangjenaegyeong-somun. Seoul : Daesungsa. 1994 : 404.
  23. Ju DG. Dangyeeuijip. Beijing : Renminweisheng publishing company. 1993 : 38-9.
  24. Zhang N. Euimunbonggal. Busan : Sogang publishing company. 1997 : 30-7, 44-5.
  25. Charles Liu. The Handy Astronomy Answer Book. Seoul : Gbrain. 2012 : 259.
  26. Lee KW. Huangjenaegyeong-somun II. Seoul : Yeogang publishing company. 2010 : 392, 396, 399.
  27. Lee YB. A study on what months of the year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belong t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 19(2) : 46-52.
  28. Principles of Meridians & Acupoints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Principles of Meridians & Acupoints; A Guidebook for College Students. Wonju : Uibangsa. 2009 : 31-4.